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7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그래도 희망을 본다..휴전 기대에 미국증시 강세

- 미국 증시, 휴전 관련 이슈에 등락 끝 강세 마감
- '데드라인' 앞두고 유가 변동성도 확대..WTI 112달러 마감
-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가격지수 70.7..물가 압력 급등

Summary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소폭 상승

4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압박과 휴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임. 다만 전쟁 관련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무게를 실으며 상승 마감. 나스닥지수와 S&P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36% 상승한 46,669.88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45% 상승한 6,612.02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54% 상승한 21,996.34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42% 상승 마감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26% 상승한 24.17에 마감.

(다우 +0.36%, 나스닥 +0.54%, S&P500 +0.44%, 러셀2000 +0.42%)

D-1..엇갈린 이야기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중재국들이 최대 45일간의 임시 휴전을 포함한 협상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전면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제시한 '데드라인'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로이터 통신 역시 파키스탄이 중재한 종전 프레임워크가 양측에 전달됐으며, 합의 시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

이에 시장은 휴전에 대한 기대를 높임. 다만 이란 국영 통신사 IRNA가 이란은 지난 2주간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거부하기로 파키스탄에 통보했다고 보도. 이란은 이에 더해 지역 내 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재건과 제재 해제 등 10개월 요구가 담긴 제안을 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은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협상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 또 "이란 전역을 하룻밤 안에 없앨 수 있으며 그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 이란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밤 12시까지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발전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4시간 안에 이를 끝낼 수 있다"고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도 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 오후 8시(동부 시간 기준, 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로 정한 바 있으며 시한을 넘길 경우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음.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작다'고 말함. 이에 장 초반 하락하던 달러 인덱스는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제유가도 초반 하락세에서 반등하며 WTI 기준 배럴당 11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음.

그럼에도, 결국은, 파국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실으며 주식은 상승하고 유가는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유가도 상승폭을 제한함.

미국 서비스업 인플레 압력 3년 5개월래 최고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이 날 발표된 3월 서비스업 PMI에도 반영됨.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0으로 2월 대비 2.1포인트 하락.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여전히 웃돌았지만 서비스업 확장 속도는 둔화 중이라는 의미. 지수 내 세부 항목으로는 가격지수가 단연 눈에 띔. 3월 서비스업 가격 지수는 70.7로 집계. 이는 전달 63에 비해 7.7포인트 급등한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쳤던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 특히 이 달 상승폭 7.7포인트는 14년만의 최대 상승폭. PMI 지표는 떨어졌지만 가격 지수만 폭등한 상황은 결국 서비스업 부문의 일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로 비용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다이먼 "인플레 등 올해 직면한 위험 5가지"

한편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올해 회사가 직면한 5가지 위험을 경고.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수개월 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충격이 향후 수개월 뒤 더 크게 몰아닥칠 수 있다며 "올해 파티의 방해꾼은 서서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경고.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이외 업계 경쟁 심화와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상실, 그리고 AI가 가져올 노동 시장 변화와 서구 세계의 취약한 동맹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더해 사모대출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함. 그는 사모대출 방식으로 이뤄진 레버리지 론 시장 규모가 약 1조 8천억 달러로 미 전체 고수익 채권 시장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를 웃돈다는 점을 지적.

특징종목

메모리 반도체주 강세

메모리 반도체주가 지난주 급락 이후 반등. 키뱅크가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재확인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15%)와 인텔(+0.79%)이 상승했고,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의견을 고수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58%)와 웨스턴 디지털(+3.11%)도 강세. 모건스탠리는 채널 조사 결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 속에 HDD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이 같은 전망과 함께 HDD 기업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 목표가 상향. 특히 모건스탠리는 시게이트를 탑픽으로 꼽아.

엔비디아(+0.14%)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루빈의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키뱅크 분석이 나온 가운데 장 중 약세권에 머물렀지만 소폭 상승 마감. 키뱅크 애널리스트 존 빈은 AI 칩에 들어가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차질을 빚데돼 올해 루빈 GPU의 생산 목표를 기존 20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 다만 생산 지연이 장기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와 275달러 목표주가를 유지.

한편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 테크놀로지(+0.71%)는 멜리우스 리서치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장 중 4%대까지 오름폭을 확대하기도. 고객사들이 공급망 병목을 피하기 위해 TSMC 외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6% 상승 마감.

에너지주 강세..화학주 약세

에너지주는 장 중 변동성에도 결국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세로 방향을 잡자 강세. 엑슨 모빌(+1.67%), 코노코필립스(+0.86%), EOG 리소시스(+0.29%), APA 코퍼레이션(+2.33%), 다이아몬드백 에너지(+0.2%).
반면 화학업체 다우(-2.03%)와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시트(-1.23%)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의견 하향 여파로 하락. 이란 전쟁에 따른 지속되기 어려운, 일시적 수혜가 올해 들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

유가 상승에도 테슬라 약세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도 동반 급등하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낮아진 중고차 가격이 맞물려 신차보다는 중고차 쪽으로의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1분기 미국의 중고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2%,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보도. 이런 가운데 지난주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공개한 테슬라(-2.15%)가 이틀째 하락. JP모건은 연간 주당 순이익(EPS) 전망을 기존 2달러에서 1.8달러로 10% 하향. 이는 컨센서스 1.95달러도 하향하는 수준. 테슬라 이외에도 전기차 업체 루시드(-6.33%)가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하락.

이에 더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체 카바나(+0.94%)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초반 2% 하락 출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유가가 중저소득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돼 2026년 거시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고 분석. 다만 중고차에 대한 최근의 소비 심리가 견조하다는 소식에 장중 반등에 성공.

비트코인 7만달러 회복 시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7만 달러 회복을 목전에 두자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강세. 비트코인 채굴 및 디지털 자산 업체 마라 홀딩스(+1.61%), 비트코인 보유 대표주 스트래티지(+6.56%),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1.94%) 등이 상승.

이외 개별 특징주

모바일 앱 마케팅 서비스 업체 앱러빈(+6.81%)이 급등. BTIG는 앱러빈의 1실적 추정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18억 2천만달러로 상향 조정. 이는 기존 전망치 17억 7천 3백만 달러와 역시 17억 달러 중반대 위치한 앱러빈의 자체 가이던스를 모두 웃도는 수치. 웨드부시 또한 앱러빈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회사의 인공지능 기반 광고 솔루션이 향후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0.27%)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강세.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확보와 개발 부문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년에 걸친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다만 장 중 4% 이상 오르던 흐름에서 상승 폭 축소 마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0.74%)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Shares Nasdaq-100'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해당 ETF는 'IQQ'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며 수수료는 명시되지 않음. 이는 기술주 중심의 지수 직접 추종 ETF가 소수에 불과한 시장에서 인베스코(-5.22%)의 'QQQ 트러스트'가 가진 지배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읽혀.

방위산업 업체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10.07%)는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한 가운데 급등. 12개월 목표주가는 85달러로 제시. 제프리스는 크라토스의 정부 솔루션 자회사가 프로메테우스와 극초음속 무기 등 14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업 부문이 2028년 연평균 30% 이상의 복합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역시 방위산업 업체인 엘빗 시스템스(+3.90%)는 그리스군에 자사의 PULS 로켓포 시스템을 공급하는 7.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강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인 솔레노 테라퓨틱스(+32.231%)은 뉴로크린 바이오사이언시스가(+0.67%) 주당 53달러, 총 29억달러 규모의 현금 인수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급등. 뉴로크린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내분비 및 희귀 질환 분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대체로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지난 주말 발표된 3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상승세로 시작. 이 날 발표된 3월 ISM 서비스업 PMI에서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금리 상승 요인. 다만 초반 상승했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내 가라앉으며 국채금리 역시 하락 전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0.8bp 상승 마감했지만 10년물 금리는 1bp 하락했으며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은 1.8bp 하락한 4.886%를 기록.

달러 가치 하락, DXY 100 하회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일만에 하락. 달러는 휴전 기대감에 낙폭을 키우다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회복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달러 반등 요인으로 작용. 전약후강의 모습이긴 했지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23% 하락해 99.999에 마감. 유럽과 영국 시장이 휴장해 거래가 대체로 한산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1.15428달러로 전장 대비 0.246% 상승.

야간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509원 80전을 기록해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원 50전 상승 마감함. NDF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507원을 기록.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

유가 소폭 상승, WTI 112달러 상회

상품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초반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로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이란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일 제시한 연기된 데드라인 관련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발언을 내놓자 상승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에 영향을 받아 WTI는 장 중 배럴당 114달러대까지 오름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이란에 적극적이고 협상 의지가 있는 참여자가 있따.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다소 유화적인 발언을 덧붙이자 고점에서 상승 폭은 소폭 반납해 마감.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78% 상승한 배럴당 112.41달러에 마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0.68% 상승한 배럴당 109.77달러에 마감. 브렌트유 6월물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종가로 최고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